

히틀러의 당 동지들에 관한 새로운 획기적인 저작

글쓴이 라이너 지텔만 2025-11-07

누가 실제로 히틀러의 당에 가입했는가? 얼마나 많은 독일인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NSDAP)으로 자칭한 당의 당원이 되었는가? 약간의 당원이 전후에 주장했듯이, 독일인들이 가입을 강요당했는가? 그 당은 자기 당원들을 어느 사회 계급들에서 끌어들이었는가? 그리고 당원들은 왜 그 당에 가입했는가? 이 주제에 관해,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현대사가 위르겐 W. 팔터(Jürgen W. Falter)는 방금 새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라우틀리지(Routledge)에 의해 막 발매되었다. "히틀러의 당 동지들. 1919-1945년 NSDAP 당원들(Hitler's Party Comrades. The NSDAP Party Members 1919-1945)". (링크)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던 날에, NSDAP는 90만 당원을 계산에 넣었다. 제3제국이 1945년에 붕괴했을 때까지는, 이 수치는 거의 900만으로 증대했었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종전까지는 독일에서 대충 일곱 중 한 유권자가 당원이었다.

1925년 자기의 재구성 후, NSDAP는 다음 20년 중 오직 합쳐서 약 12년 동안만 일반 대중으로부터 새 당원들을 받아들였다. 되풀이해서, 당원 총원들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왜? 글썬, «나의 투쟁(Mein Kampf)»과 일련의 초기 연설에서, 히틀러는 "역사적 소수파(historical minority)"의 이론을 이미 전개했었는데, 이것은 오직 역사적 소수파만이 역사를 만든다는 점을 의미한다. 역사적 소수파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경력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courageous)"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히틀러에 따르면, 정치 운동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그것이 "기성 체제(establishment system)"와 그 밖의 반대자들에 의해 맹렬하게 저항을 받는 기간에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오직 "용감한(brave)" 당원들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당이 권력을 장악했으면, 더욱더 많은 기회주의자가 자기들 자신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여 혹은 자기들 자신의 경력을 촉진하기 위해 당에 가입할 것이라는 점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경고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다. 1933년 1월 30일 후에, 기회주의와 경력 야심들이 새 당원들의 총원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1월 30일과 4월 말 사이에서만도, 175만 새 당원이 NSDAP의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이 시점[4월 말]에서 새 당원[가입]들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총원 중단들에도 불구하고, 당의 당원 수는 강하게 계속해서 증가했다.

전후에, 많은 당원은 자기들이 당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광범위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팔터는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사실상, 당원들은 충분히 당을 떠나고 자기들의 당원 지위를 취소할 수 있었다. 총 760,000명 당원이 1925년과 1945년 사이 NSDAP를 그만두었는데, 1933년 1월 이전 250,000명과 나치 독재 정권 동안 거의 500,000명이 당을 떠났다.

이 연구를 위해, 팔터는 두 가지 중앙 NSDAP 당원증 지수로부터 단연코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표본을 분석했다. 팔터가 증명하듯이, 1933년 1월 30일 이후 불균형적으로 많은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당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DAP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비율이 이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높았다. 당의 [지지] 투표자들과 비슷하게, NSDAP 당원들의 대략 40퍼센트는 노동 계급이었다. 그것의 사회적 구성 면에서, NSDAP는 노동

자들의 당도 중산층 당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포괄적인 항의 당(catch-all party of protest)”이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당에 대표되었는데, 바이마르 독일에서 다른 정당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NSDAP가 다른 정당들과 정말 달랐던 곳은 그것의 지지자들의 젊음에서였다. 초기 시대에는, 당의 새 당원 대부분은 서른 살 미만이었었는데, 심지어 스물다섯 살 미만이기도 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였다. 그다음, 당이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그것의 당원들 평균 연령도 나이가 들게 되었다. 대응하여, 1942년 새 당원[가입]들의 두 번째 중단 후에, 전쟁 생존자들 그리고 독일 국방군(Wehrmacht)을 제대한 사람들과 더불어, 오직 히틀러 청소년단(Hitler Youth)과 BDM(Bund Deutscher Mädel; 독일 소녀 동맹) 졸업생들만 받아들여졌다. 당은 여전히 젊게 되어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데 단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팔터는 마흔 살 이상 사람들의 50퍼센트가 그러나 스무 살과 마흔 살 사이 사람들의 그저 26퍼센트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그 당에 가입하는 수위의 동기로 언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NSDAP가 철저하게 반유대적 정당이었다는 점에 의심이 없지만, 히틀러는 반유대주의가 오직 소수의 투표자만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NSDAP의 초기 시대와 대조적으로, 히틀러는 1920년대 말에 자기 연설들에서 반유대주의 동기들에 주로 집중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기의 사회적 약속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국가 공동체(Volksgemeinschaft; national community)의 이상과 손에 손잡고, 또한 종종 특권들과 기성 계급 체제를 폐지하려는 욕망도 있었다. 이름에서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그 당의 정책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NSDAP의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들이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의 저자이다. (링크)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독일 #히틀러 #전체주의 #유럽 #국제사회